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명절 하면 어떤 전통 놀이가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저는 지난 설날에 온 가족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우리 전통 놀이, 윷놀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활동지를 정리하면서 잘 들어 보세요.

윷놀이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윷놀이는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대답을 듣고) 네, 정확히는 ‘모른다’라는 대답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요, 윷놀이를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15세기에 간행된 『목은집』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고려 시대에 이미 윷놀이가 성행했음이 나타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삼국 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과거에 사용된 윷놀이 말판인데요, 과거의 말판은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니라 이처럼 원형이었다고 합니다. 말판에는 29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데, 원을 그리고 있는 바깥의 점들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 원 안쪽에 있는 열십자 모양의 점들은 땅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판에는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의 철학이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윷놀이에 사용되는 윷가락은 이처럼 보통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한 짧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던진 윷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둥근 부분인 ‘등’이나 평평한 부분인 ‘배’를 보이는데, 네 윷가락이 배를 보이는 개수에 따라 도, 개, 걸, 윷, 모의 다섯 가지 윷 패로 나뉩니다.

윷놀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도는 한 칸, 개는 두 칸, 이어서 걸, 윷, 모의 순서로 말판 위에서 말이 움직이는 거리가 한 칸씩 늘어납니다. 특히 윷이나 모를 ‘사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한 번 더 윷을 던질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윷놀이를 할 때 윷 패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도가 나올 확률은 15%, 개와 걸은 각각 35%, 윷은 13%, 모는 2% 정도입니다. 윷놀이를 할 때 이 확률을 고려하면 말 놓기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윷놀이는 윷을 던지는 방법뿐만 아니라 말 놓기 전략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데, 놀이 방식은 간단하지만 우연성과 전략의 조화로 인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흥미진진한 게임이죠.

지금까지 윷놀이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제 발표가 윷놀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미소를 지으며) 다음 명절에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신명 나는 윷놀이 한 판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1.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 ④ 설명하는 내용의 출처를 언급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전통 놀이, 윷놀이>

1. 윷놀이의 역사
 - (고려 시대)에 이미 성행함. ㉠
2. 말판의 모양과 의미
 - 과거: 원형 말판 → 현재: 사각형 말판
↳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 (땅)을 나타냄. ㉡
3. 윷가락과 윷 패
 - 윷가락의 등: (평면) 부분, 배: (곡면) 부분 ㉢
↳ 배를 보이는 개수에 따라 윷 패를 구분함.
4. 놀이의 규칙
 - 윷 패에 따라 말의 이동 거리가 달라짐.
 - (사리)일 때 윷을 한 번 더 던짐. ㉣
5. 윷 패가 나올 확률
 - 개 = (걸) > (도) > 윷 > 모 ㉤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보기>는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윷놀이를 할 때 윷 패가 나오는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내가 해 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개나 걸이 자주 나오고 모는 잘 안 나오던데,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도 실제 윷놀이를 했을 때 나오는 윷 패의 확률이 그대로 적용되었을까?

- 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 아쉬워하며 듣고 있다.
- ②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를 구분하며 듣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이 발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듣고 있다.
- ④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궁금증을 가지고 듣고 있다.
- ⑤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배경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다.

[4~7] (가)는 학생이 실시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교지에 실기 위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안녕하세요. 저희 교지 편집반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렇게 선배님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저희들에게는 무척 낯선데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선배: 네, 우리가 일상에서 각종 기기들을 쓰게 되는데, 기기가 작동할 때 특유의 소리가 나잖아요? 기기에서 나는 그런 인위적인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제 작업실에 오셨으니까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만든 소리 한번 들어 볼까요? (두 가지 소리를 들려준다.)

학생: 이거 많이 듣던 소리인데요. 처음 들은 건 컴퓨터를 켜올 때 나는 소리이고, 두 번째 들은 건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알리는 소리 같아요.

선배: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소리를 들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떠올랐나요? 그 소리가 나는 제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았나요?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새 기억 속에 소리가 각인돼 해당 제품의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때 각인된 소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아내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 결국 제품의 소리가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군요. 제 말이 맞나요?

선배: 네, 맞아요.

학생: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소리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선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들려주며) 자, 이 소리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각종 경보음이에요. 이런 소리는 여기 있는 디지털 음향 기기로 직접 만듭니다. (다른 소리를 들려주며) 이 소리는 휴대폰 벨 소리인데, 이미 누군가가 만든 곡을 제품에 어울리게 변형한 겁니다. 자, 이 소리도 한번 들어 보세요. (또 다른 소리를 들려주며) 이 소리는 가짜 엔진 소리인데, 실제 자동차의 엔진 소리를 녹음하여 만든 겁니다.

학생: 가짜 엔진 소리요? 그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선배: 요즘 전기 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저속 운행을 할 때,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짜 엔진 소리가 필요합니다.

학생: 듣고 보니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흥미롭기도 하고 제품을 위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선배: 우선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리에 대한 감수성과 이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평소에 다양한 음악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 네, 그렇군요. 끝으로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의 전망은 어떤가요?

선배: 우리나라의 전자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 영화나 게임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운드 디자인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지리라 전망합

니다. 후배님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학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작동될 때 나는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영화나 게임, 전자 제품에서 사용되는 소리를 디지털 장비로 만들면서 예전에 음향 엔지니어로 불렸던 사람들이 사운드 디자이너로 불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나는 특정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소리가 기억에 남아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소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이미지가 결정된다. 즉, 제품에 사용된 소리가 매력적일수록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제품에 대한 이미지도 매력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의 소리가 결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사운드 디자인을 할 때는 디지털 음향 기기를 이용해서 새롭게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곡을 제품에 맞게 변형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는 물소리나 자동차 소리와 같은 실제 소리를 녹음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사운드 디자이너는 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학적인 지식과 함께 음향이나 음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음향공학과나 음악과, 작곡과 등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운드 디자이너들 중에는 이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매력적인 소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운드 디자이너의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음악이나 음향 등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분야이다.

4. <보기>의 ㄱ~ㄴ 중에서 (가)의 '학생'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 보 기 >
- ㄱ.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 뒤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고 있다.
 - ㄴ. 상대방의 말 중 의문이 드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ㄷ. 상대방의 말이 사전에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 ㄹ. 상대방의 답변 내용 중에서 모르는 용어의 개념을 묻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자의 경험을 환기하며, [B]는 구체적 사례를 들며 설명하고 있다.
- ② [A]는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B]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③ [A]는 청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B]는 일상적 상황을 가정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④ [A]는 청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B]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⑤ [A]는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B]는 기기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며 설명하고 있다.

6. <보기>는 (나)를 쓰기 전 편집부장이 '학생'에게 조언한 (나)의 집필 방향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편집부장: 보내 준 인터뷰 녹음 파일 잘 들었어. 교지에 실을 글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인터뷰에는 없지만 _____을/를 언급해 주면 친구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 ① 사운드 디자이너의 작업 과정
- ②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갖는 보람
- ③ 사운드 디자이너와 관련된 전공 학과
- ④ 사운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산업
- ⑤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생긴 배경

7. <조건>에 따라 (나)에 제목을 붙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비유법을 활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일 것.
-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을 드러낼 것.

- 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인들을 만나다
- ② 사운드, 세상과 나를 이어 주는 연결 고리
- ③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소리의 샘을 발견하다
- ④ 제품에 매력적인 옷을 입히는 소리의 마법사
- ⑤ 사운드 디자이너, 세상에 없는 소리를 찾아서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여정, 견문, 감상이 담긴 문학 기행문을 작성한다.

[작문 계획]

- a. 군산을 답사지로 택한 이유를 밝힌다.
- b. 군산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제시한다.
- c. 군산 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 d.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에서 들은 내용을 제시한다.
- e. 군산항에서 금강을 바라보며 느낀 감상을 드러낸다.

[초고]

이번 우리 문예반의 문학 기행 장소로 군산이 결정되었다. 국어 시간에 배운 채만식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군산 답사를 통해 그의 삶과 문학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문학 기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탁류』를 다시 읽으며 답사 일정을 정했다.

3월의 어느 날, 우리는 ㉠ 설레이는 마음으로 익산행 기차를 탔다. 그런데 도착할 즈음 야속하게도 차창 밖으로 비가 후드득 내리기 시작했다. 익산역에 내려 버스로 갈아탈 때는 비를 맞지 않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다행히 군산에 도착하니 비는 멎어 있었다. 터미널에서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하는 거리의 풍경은 낯설었다.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된 길과 일본식 가옥의 모습은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낮은 담장을 배경으로 붉은 동백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었다.

채만식 문학관은 군산 내항 근처 금강이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문학관을 들어서자 중절모를 쓴 채만식 작가의 동상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파노라마식으로 펼쳐진 1층 전시실에서 작가의 삶의 흔적을 따라가며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을 둘러보았다. ㉡ 그런데 2층의 한쪽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탁류』의 내용을 원고지에 필사도 해 보았다. 우리는 다시 차를 타고 금강을 따라 10분쯤 이동하여 군산 내항에 도착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이곳을 통해 호남 지역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해 갔다고 한다. ㉢ 역사에 수탈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추슬렀다.

우리는 군산 내항 앞 근대 역사 박물관에 들었다. 3층에는 일제 강점기 군산의 모습을 ㉣ 다시 재현한 근대 생활관이 있었다. 특히 『탁류』에서 읽은 미두장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

근대 역사 박물관을 나와 군산항으로 발길을 돌렸다. 금강이 바다와 만나 혼탁해진 물빛을 바라보며 『탁류』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떠올렸다. 흐린 강물처럼 혼란스러웠을 일제 강점기, 그리고 쌀 수탈의 통로였던 군산, 그곳의 미두장에서 투기를 하다 패가망신한 정 주사와 당대 사람들의 삶의 질곡이 피부로 ㉤ 느꼈다.

군산항을 떠날 때쯤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둘러 떠나려는데 길가에 소담하게 핀 민들레가 눈에 띄었다. 언젠가 책에서 읽었던 채만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나 가거든 손수레에 들꽃 가득가득 날 덮어 주오.’

애달픈 역사를 품은 아름다운 군산,
다시 가고 싶은.....

8. '학생'의 작문 계획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9. <보기>의 (가)와 (나)를 모두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시각 자료

지역	비율
군산	40.2%
부산	33.5%
인천	14.7%
진남포	10.9%
목포	0.7%

- ○○ 방송 자료 -

(나) 인터뷰 자료

“군산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군산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지대인 호남평야의 쌀이 집결되는 경제 요충지로, 일본으로 쌀이 반출되는 창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 투기와 사기, 고리대금업 등이 횡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쌀의 시세를 이용하여 투기 행위를 하는 미두장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알가지 신세로 전락하여 결국 인간성마저 잃어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 문화 해설사 이△△ -

- ① 1문단에서 『탁류』의 줄거리에 따라 군산 답사 일정을 정하게 된 계기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2문단에서 『탁류』의 배경인 군산의 이국적인 모습과 관련해 일본식 주거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3문단에서 『탁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쌀 수탈량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4문단에서 『탁류』에서 정 주사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었던 미두장의 전국적 분포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5문단에서 『탁류』의 배경인 군산이 일제의 식량 수탈로 혼란한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모인 공간으로 그려질 수 있었던 개연성을 언급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10. ㉠ ~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설레는'으로 고친다.
- ② ㉡: 접속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그래서'로 고친다.
- ③ ㉢: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역사의'로 고친다.
- ④ ㉣: 의미가 중복되므로 '다시'를 삭제한다.
- ⑤ ㉤: 문장 성분의 호응을 고려해 '느껴졌다'로 고친다.

11. <보기>의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음운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날 때 최종적으로 음운의 수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죠? 오늘은 좌표를 이용해서 이를 쉽게 확인해 볼게요.

이 좌표 평면에서 0인 별표(★)를 기준으로, 음운의 수가 늘어나는 '첨가'는 늘어난 음운 수만큼 위쪽으로, 음운의 수가 줄어드는 '탈락'과 '축약'은 줄어든 음운 수만큼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는 교체 횟수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걸히다'는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거티다]가 된 후 구개음화에 의해 [거치다]가 되므로,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색연필'의 음운 변동 양상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 제 생각에는 '색연필'이 [색년필]로 바뀌므로, (㉠)이 한 번씩 일어나 (㉡)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 음운의 수가 한 개 늘어납니다.

- | | | |
|---|--------|---|
| | ㉠ | ㉡ |
| ① | 첨가와 교체 | ㉡ |
| ② | 첨가와 교체 | ㉢ |
| ③ | 첨가와 탈락 | ㉣ |
| ④ | 탈락과 교체 | ㉤ |
| ⑤ | 탈락과 교체 | ㉡ |

12. <보기>의 ㉠과 ㉡이 모두 적용된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부정 표현이란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부정 표현은 부사인 '안'과 '못'을 사용해서 짧게 표현할 수도 있고, ㉠ '-지 아니하다'와 '-지 못하다' 등을 사용해서 길게 표현할 수도 있다. 부정 표현은 능력을 부정하거나 의지를 부정하는 것 이외에 ㉡ 단순히 사실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 ① 우리가 묵은 방은 두 평이 채 못 된다.
- ② 나는 저녁을 먹으려고 간식을 안 먹었다.
- ③ 그는 용기가 없어서 발표를 잘하지 못했다.
- ④ 다행히 소풍을 가는 날 비가 내리지 않았다.
- ⑤ 동생은 숙제를 한다면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높다’의 ‘높-’은 어간이기도 하고 어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간일 때와 어근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간과 어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간은 용언 등이 활용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바뀌면서 활용되는데,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예를 들어 ‘높다’가 ‘높고’, ‘높지’와 같이 활용될 때, ‘높-’은 어간이고, ‘-고’나 ‘-지’는 어미이다.

이와 달리 어근은 단어를 구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리고 어근의 앞이나 뒤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 주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용언을 어근과 접사로 분석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어간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령, ‘드높다’의 경우 어간인 ‘드높-’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높-’은 어근이고, 그 앞에 붙어 ‘심하게’라는 의미를 덧붙여 주는 ‘드-’는 접사이다. 접사는 어근 뒤에 결합하기도 하는데,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한 ‘높이다’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어간			어미
	접사	어근	접사	
높다	.	높-	.	-다
드높다	드-	높-	.	-다
높이다	.	높-	-이-	-다

한편 단어는 ‘높다’와 같이 하나의 어근으로 구성된 경우나 ‘드높다’나 ‘높이다’와 같이 어근에 접사가 결합한 경우 이외에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높푸르다’의 경우 어근 ‘높-’과 어근 ‘푸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높다’에서 ‘높-’은, 단어가 활용될 때 ㉠ 는 점에서 ‘어간’, 단어를 구성할 때 ㉡ 는 점에서 ‘어근’이라고 할 수 있다.

- | | |
|----------------|--------------|
| ㉠ | ㉡ |
| ① 형태가 변한다 |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 ②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 ③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의미를 덧붙여 준다 |
| ④ 의미를 덧붙여 준다 | 형태가 변한다 |
| 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14. <보기>의 ‘자료’에서 ‘활동’의 a~c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료] 용언: 검붉다, 먹히다, 자라다, 치솟다, 휘감다

[활동]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는 단어를 모아 봅시다.
- a
-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모아 봅시다.
- 어근의 앞이나 뒤에 접사가 결합한 단어: b
-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단어: c

- ① a: 휘감다
- ② a: 자라다
- ③ b: 먹히다
- ④ b: 치솟다
- ⑤ c: 검붉다

15. <보기>에 있는 ‘자료’의 밑줄 친 부분에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넣으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목적어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이다. 문장에서 목적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 체언 + 목적격 조사 ‘을/를’
- 체언 +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 ㄱ
- 체언 단독 ㄴ
- 체언 + 보조사 + 목적격 조사 ㄷ

[자료]

그는 _____ 갔어.

- ① ㄱ의 예로 ‘산책을’을 넣을 수 있다.
- ② ㄱ의 예로 ‘이사도’를 넣을 수 있다.
- ③ ㄴ의 예로 ‘꽃구경’을 넣을 수 있다.
- ④ ㄴ의 예로 ‘배낭여행’을 넣을 수 있다.
- ⑤ ㄷ의 예로 ‘한길만을’을 넣을 수 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어증(失語症)이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1865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 브로카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부위를 브로카 영역이라 **㉔**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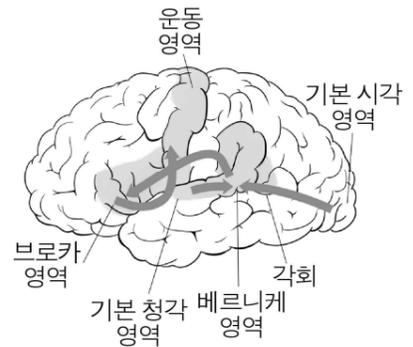
이후 1874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베르니케는 좌뇌의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실어증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부위를 베르니케 영역이라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㉕**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다.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으로,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후 1885년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에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가 결합하여 언어가 처리된다는 **㉖**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이고, 브로카 영역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 그리고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이다. 리시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리시트하임은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듣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 개념 중심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베르니케 영역은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 개념 중심부로 송부하고, 개념 중심부는 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 → 브로카 영역 → 베르니케 영역 → 브로카 영역’과 같이 **㉗** 브로카 영역을 두 번 거치는 복잡한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하여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브로카 영역으로 송부하고, 마지막으로 브로카 영역에서 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는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의 모형에는 그러한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그는 개념 중심부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나 그것의 정확한 위치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를 토대로 1964년 게쉬윈드는 **㉘**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는 리시트하임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그림>은 게쉬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으로, 청각 자극

을 **㉙**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과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시각 영역,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라는 네 개의 언어 중추를 중심으로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게쉬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



<그림>

하는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와 읽기에서는 수용된 자극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의미를 해석하고,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브로카 영역에는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외에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운동 영역은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말하기나 쓰기에 필요한 신경적 지시를 내리는 기능을 **㉚** 담당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각회는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읽기에서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 형태로 전환하고, 쓰기에서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여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 모형에 **㉛** 의거하면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 →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 → 브로카 영역 → 운동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나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이기 때문에 각회를 거치는 과정이 추가된다.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한다.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다. 특히 베르니케 - 게쉬윈드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표준형으로 평가받는다.

*언어 중추: 언어의 생성과 이해를 관장하는 뇌의 중추.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실어증은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처리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이다.
- ②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했다.
- ③ 베르니케가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 ④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됨에 따라 설정되는 언어 중추의 개수가 많아졌다.
- ⑤ 리시트하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 위치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실제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 ② ㉡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추가하였다.
- ③ ㉠은 ㉡과 달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 ④ ㉡은 ㉠과 달리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보았다.
- ⑤ ㉠과 ㉡ 모두 베르니케 영역에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18.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정보를 송부하기 때문에
- ②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 ③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 ④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정보를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 ⑤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베르니케 - 계쉬윈드 모형’에 의하면 쓰기 과정은 다음과 같은 언어 처리 과정을 거친다.

베르니케 영역	→	각회	→	베르니케 영역	→	브로카 영역	→	운동 영역
(가)		(나)		(다)		(라)		(마)

- ① (가): 의미를 형성하고 해당하는 단어를 찾는다.
- ② (나):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한다.
- ③ (다): 각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
- ④ (라): 쓰기를 하는 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 ⑤ (마): 운동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경적 지시를 내린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시트하임(A)’과 ‘계쉬윈드(B)’가 진단할 만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실어증 환자 관찰 결과]

-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사용함.
- 조사나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
-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함.

- ① A는 B와 달리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 ② B는 A와 달리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 ③ A는 브로카 영역이, B는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 ④ A는 개념 중심부가, B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 ⑤ A와 B 모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다고 진단하겠군.

21. 문맥에 따라 ㉠ ~ ㉢를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름 붙이고
- ② ㉡: 옮겨지면서
- ③ ㉢: 받아들이는
- ④ ㉠: 말한다고
- ⑤ ㉢: 따르면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벗이 뗏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벗과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제2수>

㉠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의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

(나)

작년 가을에 이웃집에서 복수초를 나누어 받았다. 뿌리는 구근이 아니라 흑갈색 잔뿌리와 검은 흙이 한데 엉겨 있고, 키는 땅에 닿을 듯이 작는데 잎도 새의 깃털처럼 잘게 갈라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느껴지지 않아 하찮은 잡초처럼 보였다. 그전에 나는 복수초라는 화초를 사진으로 본 적은 있지만 실물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게 과연 눈 속에서 핀다는 그 복수초인지 잘 믿기지 않았다. 생각해서 나누어 준 분 앞이라 당장 양지바른 곳에 심긴 했지만 곧 가을이 깊어지니 워낙 시원치 않아 보이던 이파리들은 자취도 없어지고 나 역시 그게 있던 자리조차 기억 못하게 되었다.

아마 3월이 되자마자였을 것이다. 셋노란 꽃이 두 송이 땅에 닿게 피어 있었다. 하도 키가 작아서 하마터면 밟을 뻔했다. 그러나 빛깔은 진한 황금색이어서 아직 아무것도 싹트지 않은 황량한 마당에 몹시 생똥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곧 큰 눈이 왔다. 아무리 눈 속에도 피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어도 그 작은 키로 견디기엔 너무 많은 눈이었다. 나는 눈으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꺾인 듯이 축 처진 소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는 그 셋노란 꽃의 속절없음을 생각하고 있었다. 대문 밖의 눈은 쳐 주었지만 마당의 눈은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아 없어지는 데 며칠 걸렸다. 놀랍게도 제일 먼저 녹은 데가 복수초 언저리였다. ㉡ 고 작은 풀꽃의 머리칼 같은 뿌리가 땅속 어드메서 따뜻한 지열을 길어 올렸

기에 그 두터운 눈을 녹이고 더욱 셋노랑게 더욱 싱싱하게 해를 보고 있었다. 온종일 그렇게 피어 있다가 해질 무렵에는 타원형으로 오프라든다. 그러다가 아주 시들어 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날 해만 뜨면 다시 활짝 핀다. 그러나 마냥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곧 안 깨어나고 저 버리는 날이 있겠기에 그게 피어 있는 동안만이라도 누구에게든 보여 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집에 손님만 오면 그걸 구경시킨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신기해 해 주는 이가 별로 없다. 어떤 친구는 마당에 피는 꽃이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해서 부러워했는데 이런 것까지 쳐서 백 가지냐고 기막힌 듯이 물었다. 듣고 보니 내가 그런 자랑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친구는 아마 기화요초*가 어우러진 광경을 상상했었나 보다. 내가 백 가지도 넘는다고 한 것은 복수초 다음으로 피어날 민들레나 제비꽃, 할미꽃까지 다 합친 수효다. 올해는 복수초가 1번이 되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산수유가 1번이었다. 곧 4월이 되면 목련, 매화, 살구, 자두, 앵두, 조팝나무 등이 다투어 꽃을 피우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날짜를 달리해 순서대로 피면서 그 그늘에 제비꽃이나 민들레, 은방울꽃을 거느린다. 꽃이 제일 먼저 핀 것은 복수초지만 잎이 제일 먼저 흙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상사초고 그 다음이 수선화다. 수선화는 벚꽃이 필 무렵에나 필 것 같고 상사초는 잎이 시들어 지상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있다가 꽃대를 밀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마중하다 보니 내 머릿속에 ㉢ 출석부가 생기게 되고, 출석부란 원래 이름과 함께 번호를 매기게 되어 있는지라 10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름을 모르면 100번이라는 숫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들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멋대로 피고 지면 이름이 궁금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그것들은 올 것이다. 그대로 나는 그것들이 올해도 하나도 결석하지 않고 전원 출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리로, 씨로 잠든 땅을 함부로 밟지 못한다. 그것들이 왕성하게 자랄 여름에는 그것들이 목마를까 봐 마음 놓고 어디 여행도 못 할 것이다. 그것들은 출석할 때마다 내 가슴을 기쁨으로 뛰놀게 했다. 100식구는 대식구다. 나에게 그것들을 부양할 마당이 있다는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 내가 이렇게 사치를 해도 되는 것일까. 괜히 송구스러울 때도 있다.

그것들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쁨 때문에 기다린다.

- 박완서, 「꽃 출석부 1」 -

* 기화요초: 옥같이 고운 풀에 핀 구슬같이 아름다운 꽃.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 ① (가)의 <제4수>에서 화자는 눈서리 속에서도 잎이 지지 않는 모습에서, 시련에 굴하지 않는 굳건함을 ‘솔’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②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곧고 사계절 그 푸름을 잃지 않는 모습에서, 본모습을 지켜 나가는 끈기함을 ‘대나무’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③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 있는 것이, 보고도 말 아니 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나)에서 글쓴이는 하찮은 잡초처럼 보이는 겉모습으로 인해서 속에서 피는 ‘복수초’의 강인함이라는 속성을 한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작은 키로는 건디기 어려운 두터운 눈을 녹이고 꽃을 피운 모습에서, 역경을 이겨 내는 생명력을 ‘복수초’의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군.

24. <보기>는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1수	제2, 3수	제4, 5수	제6수
A	B	C	D

- ①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구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적 운율감을 이어가고 있다.
- ④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⑤ B, C, D의 각 수에서는 A에서 언급된 중심 소재를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25.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화자의 동질감이, ㉡에는 글쓴이의 이질감이 담겨 있다.
- ② ㉠에는 화자의 안도감이, ㉡에는 글쓴이의 불안감이 담겨 있다.
- ③ ㉠에는 화자의 거리감이, ㉡에는 글쓴이의 친근감이 담겨 있다.
- ④ ㉠에는 화자의 비애감이, ㉡에는 글쓴이의 애상감이 담겨 있다.
- ⑤ ㉠에는 화자의 자괴감이, ㉡에는 글쓴이의 만족감이 담겨 있다.

26. (나)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더 많은 종류의 꽃들을 마당에 심고 싶어 하는 글쓴이의 소망이 담겨 있다.
- ② 소박한 꽃보다 화려한 꽃의 가치를 우선시했던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담겨 있다.
- ③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글쓴이의 조급함이 담겨 있다.
- ④ 자연의 질서에 따라 차례대로 피고 지는 꽃들에 대한 글쓴이의 애정과 기대감이 담겨 있다.
- ⑤ 소중하게 가꾼 꽃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나는 삼촌의 연락을 받고 멧돼지 사냥에 동참하게 된다. 물망초 카페 윤 마담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던 삼촌은 사냥에 취미를 붙이고 살아간다. 나와 삼촌, 도라꾸 아저씨는 새끼를 거느린 어미 멧돼지와 리기다소나무 숲에서 마주치나 사냥에 실패한다. 도라꾸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업고 숲길을 걷는다.

숲속은 서늘했다. 묘한 침묵이 숲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밝고 올라온 눈길을 되밟으며 우리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두 번째 리기다소나무 숲을 지나는 동안, 내 마음속에는 궁금증이 일었다. 감정 정리를 하는지 삼촌의 만담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런데 도라꾸 아저씨는 아까 왜 멧돼지를 안 죽였어? 아저씨도 쏠 수 있었잖아?”

내 물음에 도라꾸 아저씨는 ㉠ 영 탄소리였다.

“호식이 새끼 관절 물고 늘어진 모양이라. 그라만 어미가 도망 못 가거든. 엽견* 중에는 그런 짓 하는 놈들 참 많아.”

“저게 원체 영물이라 캅게.”

코맹맹이 소리로 훌쩍거리며 삼촌이 말했다. 조금 전까지 사랑이 어찌네 수면제가 어찌네 징징거리던 삼촌이 주인을 닮아 어디가 부러졌는지 오른쪽 뒷발을 들고 경충경충 뛰어가는 놈을 가리켜 영물 운운했다. 호식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만담을 시작할 모양이었다. 삼촌 가슴속은 암만해도 푸른색인가 보다.

“하지만 그건 암수(暗數)*라. 그런 암수를 쓰만 안 되는 거라. 나도 한때 그 이름도 아름다운 물망초 윤 마담까지는 못 되더라도 헛된 공명심에 눈이 먼 적이 있어. 불질 잘한다고 알려지만 여기저기서 해수구제* 해 달라고 부르는 일이 많다 캅게. 가서 잡아 주만 영웅 되고 참 재미나지. 근데 한번은 올때나 대단하던지 새끼를 물고 다니면서도 손아귀 사이로 모래알 빠지듯 물이꾼들 사이로 잘도 피해 다니는 놈을 만난 적이 있어. 삼백 근도 넘을까. 엄청시리 대형 멧돼지였는 거라. 그런 놈 어데 다시 만나겠나. 무려 육박 칠 일 동안 그놈을 쫓아댕겼으께 말 다한 거지. 그라고 봉계 안 되겠더라. 어느 순간부터 요놈이 나 갖꼬 노나, 그런 생각이 들데. 지금 생각하만 틀린 생각이지. 살겠다고 도망가는 멧돼지 신세에 어데 사냥꾼을 갖꼬 놀겠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숨탄것 목숨이 그래 우스운 게 아인데 말이라.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드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라. 우쭐든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뿐이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죽였어. 보이는 족족 썩 죽였어. 그래, 암수지 암수. 한 다섯 마리쯤 죽였을 끼라. 그때가 초가을인데 아직도 새끼들 등에 줄이 짝짝 그어져 있을 때였어. 한 두어 방 쏘만 새끼들은 꿈틀꿈틀하다가 죽어 버리어. 멀리 있어도 호수 작은 산탄으로 쏘만 되니까. 어미는 산탄이 박혀도 괜찮다 캐도 새끼들은 어미 보는 눈앞에서 픽픽 쓰러지지.”

새끼만 노리고 다섯 마리쯤 죽인 뒤에 도라꾸 아저씨는 일행에게 다시 돌아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삼십 킬로미터 정도는 올라간 뒤였다. 도라꾸 아저씨는 며칠간의 사냥으로 거지꼴이 된 채 그냥 돌아갈 수 없다고 불평하는 일행을 이끌고 다시 능선을 따라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야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필시 쫓아온다는

거를 말이라. 뒤긴 뒤라, 어미 멧돼지지. 우리가 새끼들을 들쳐 메고 가니까 어미가 계속 그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쫓아왔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그래 쫓아오더라. 그래, 한 여섯 시간을 걸어가다가 새끼들 내리 놓고 다시 물이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잡았지. 죽을라고 쫓아온 놈이니까. 그런데 봐라, 잡는 그 순간에 나도 너맨치로 그놈하고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에 뭐가 보였는가 아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텅 비었더라. 결국 너는 못 쫓았어? 나도 한참을 못 쫓았다. 그래 벌써 죽은 놈이라 카는 거를 아는 이상은 못 쏘는 거라. 쏘만 안 되는 거라. 하지만 일행이 지켜보는데다가 공명심도 있음께 안 쏠 수가 없었다. 살아생전 총 한 번 제대로 안 쏘고 잡은 멧돼지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녹아내리는지 멀리 가지에 쌓였던 눈무지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총 쏘기 전에 벌써 죽은 놈이라 카만 나는 도대체 뭘 썩 죽인 거겠나? 마을에서 영웅 대접 받고 집에 돌아와 며칠을 끄끔 앓다가 깨달았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아무래도 총을 쏘만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라고 보만 그날 내가 잡은 거는 정녕 멧돼지가 아니었던 거지. 이래 산에 오만 쓸모 적은 나무나마 리기다소나무도 살아가고 청솔모도 살아가고 바람도 쉼 없이 움직이지만, 정작 그 멧돼지는 이미 죽은 거였으께 말이라.”

“그라만 아저씨가 그때 썩 죽인 거는 뭐라?”

우리는 리기다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하얀빛과 성긴 겨울 햇살이 투명하게 서로 뒤엉키고 있었다. 도라꾸 아저씨는 코를 한 번 훌쩍였다. 눈 밟는 소리와 사냥개들이 끄끙거리는 소리만 사이를 두고 들릴 뿐이었다.

“그래 나는 한 번 죽었다.”

도라꾸 아저씨는 ㉡ 또 탄소리였다.

(중략)

“저 봐라, 리기다소나무도 있고 직박구리도 있다. 저래 다 살아가고 있는 거라. 산 것들 저래 살아가게 하는 일이 올때나 용기 있는 일인가 나는 그때 다 깨달았던 기라. 내가 해수구제 한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짐승들 썩 죽인 것도 용기 있어서가 아이라 나하고 마누라하고 애새끼들하고 먹고살아 갈라고 그런 거라는 걸 그때야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 도라꾸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인 줄 알았던 거라. 그라고 나니까 어데 약실에 돌맹이 하나도 못 집어넣겠더라.”

삼촌을 등에 업은 도라꾸 아저씨는 지친 기색도 없이 눈 쌓인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아저씨의 말은 알 듯 말 듯했다.

“내가 니 삼촌을 왜 좋아하는가 아냐?”

“좋은 말 상대니까 그런 거 아이라?”

“멧돼지 눈 보고 옛날 애인 생각나서 총 못 쏘다 카는 사람 아이라. 그래 내가 니 삼촌 좋아하는 거라. 내가 뭘 소리 하는가 알겠나?”

“지금 뭘 소리 합니까? 이것도 만담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되물었다.

- 김연수, 「리기다소나무 숲에 갔다가」 -

* 엽견: 사냥개.

* 암수: 속임수.

* 해수구제: 해로운 짐승을 몰아내어 없앴.

27.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요약적 서술과 대화를 교차하여 사건이 반전되는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28.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삼촌은 '나'에게 사랑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② 삼촌은 사냥에 동행한 엽견 호식이 자신을 닮았다는 점에서 영물이라 불렀다.
- ③ 도라꾸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았던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 ④ 도라꾸 아저씨는 부상당한 삼촌을 등에 업고 리기다소나무 숲을 빠져나왔다.
- ⑤ 도라꾸 아저씨는 삼촌이 옛 애인 생각이 나서 멧돼지에게 총을 쏘지 못한 심정을 이해했다.

29. '나'와 '도라꾸 아저씨'의 대화 양상을 고려하여,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도라꾸 아저씨의 말에 대한 나의 놀라움을, ㉡은 불신감을 나타낸다.
- ② ㉠과 ㉡은 나의 질문을 가로막는 도라꾸 아저씨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다.
- ③ ㉠과 ㉡을 통해서 '나'가 도라꾸 아저씨의 의중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이 ㉡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만담을 이어가려는 도라꾸 아저씨에 대한 '나'의 냉소적 태도가 약화되고 있다.
- ⑤ ㉡은 ㉠에 담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이 이루어진 데에 따른 성취감을 반영한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도라꾸 아저씨'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도라꾸 아저씨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자연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자연을 도구로서의 가치만 지닌 타자로 대했었다. 그런데 사냥 중 이러한 인식에 변화가 시작된다. 그는 하나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행동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생태주의적 인식을 하게 된다.

- ① 도라꾸 아저씨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은 죽은 새끼들을 쫓아온 어미 멧돼지와 시선을 마주한 것이 계기가 되었겠군.
- ② 도라꾸 아저씨가 한때 멧돼지의 생명을 우습게 여겼던 이유는 멧돼지를 자신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가치로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③ 도라꾸 아저씨가 자신이 한 번 죽었다고 말한 것은 멧돼지들을 거침없이 죽였던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④ 도라꾸 아저씨가 세 사람과 마주친 멧돼지를 죽이지 않은 것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생태주의적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겠군.
- ⑤ 도라꾸 아저씨가 새끼의 생명을 빼앗아 어미 멧돼지를 잡는 사냥법을 암수라고 한 삼촌의 말에 동의한 것은 멧돼지도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명체임을 인정한 것이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의 ‘미래주의 선언’을 시작으로, 화가 발라, 조각가 보치오니, 건축가 상텔리아, 음악가 루솔로 등이 참여한 전위예술* 운동이다. 당시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과 민족적 자존감을 ㉠ 고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려는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은 질주하는 자동차, 사람들로 북적이는 기차역, 광란의 댄스홀,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 주는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아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 추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질주하고 있는 말의 다리는 4개가 아니라 20개다.’라는 미래주의 선언의 내용은,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 지향하고자 했던 미래주의 화가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분할주의 기법은 19세기 사진작가 머레이의 연속 사진 촬영 기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미지의 겹침, 역선(力線), 상호침투를 통해 대상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이미지의 겹침은 화면에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켜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마치 연속 사진처럼 화가는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힘의 선을 나타내는 역선은, 대상의 움직임의 궤적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하는 방법이다. 미래주의 화가들은 사물이 각기 특징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역선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화가의 느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상호 침투는 대상과 대상이 겹쳐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역선을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면 대상이 다른 대상이나 배경과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호 침투가 발생해 대상이 사실적인 형태보다는 ㉣ 왜곡된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래주의 화가들은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을 아름다움의 요소로 보았다면, 미래주의 회화는 움직이는 대상의 속도와 운동이라는 미적 가치에 주목하여 새로운 미의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미래주의 회화는 이후 모빌과 같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 주는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 데 ㉥ 영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전위예술: 기존의 표현 예술 형식을 부정하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예술 경향.

31. 밑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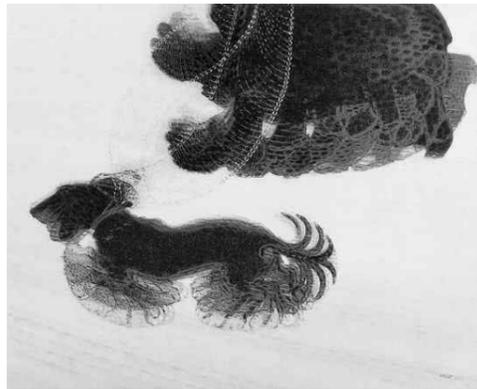
- ① 미래주의에 참여한 예술가들
- ② 미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
- ③ 미래주의 화가들이 사용한 기법
- ④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 온 과정
- ⑤ 미래주의 화가들이 추구한 미의식

32. ㉠의 구체적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회화 양식에서 벗어나 움직이는 대상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초로 작품화하려는 생각
- ② 기존의 방식과 달리 미적 가치를 3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대상을 통해 구현하려는 생각
- ③ 사진의 촬영 기법을 회화에 접목시켜 비례와 조화에서 오는 조형물의 예술성을 높이려는 생각
- ④ 산업 사회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인류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화폭에 담아내려는 생각
- ⑤ 예술적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확대하여 작품을 창작하려는 생각

3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발라의 「강아지의 다이내미즘」은 여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미래주의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 ① 움직이는 강아지의 모습을 속도감 있게 그린 것에서 미래주의 회화의 경향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선을 교차시켜 쇠사슬의 잔상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것에서 역선을 통해 사실적인 형태를 강조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강아지의 발과 바닥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이는 것에서 대상과 배경의 상호 침투 효과를 엿볼 수 있겠군.
- ④ 강아지의 발을 중첩시켜 표현한 것은 이미지 겹침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사람의 다리를 두 개가 아닌 여러 개로 그린 것은 분할주의 기법을 활용하여 걷는 이의 역동적 모습을 강조한 것이겠군.

34.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임.
- ②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여 나감.
- ③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
- ④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⑤ ㉤: 자신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 황제가 크게 화를 내어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여 계란을 솜으로 여러 번 싸서 돌함에 넣고 황초를 불에 녹여 그 안을 채워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구리쇠를 녹여 함에 부어 열어 보지 못하게 하여 봉서와 함께 신라에 보내었다. 봉서의 내용인즉,

㉠ ‘너희 나라가 만약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바치지 못한다면, 너희 나라를 도살하여 없애 버리겠다.’ 하였더라. 대국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신라에 도착하니 신라왕이 몸소 사신을 맞이하고 조서를 읽어 보시고는 즉시 나라의 선비들을 불러 모아 이르시기를,

㉡ “너희 유생 중에 이 함 속에 있는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는 사람은 장차 관직을 높여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하시매 아무도 그 속 물건을 알아내지 못하여 온 조정이 들끓더라.

이때 아이도 왕이 내린 명령을 들었다. 또 나 승상의 딸아이가 아름답고 재예*가 뛰어나며 게다가 절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터인지라, 떨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수선하는 장사로 사칭하고는 서울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승상 댁 문 앞에 이르러 ‘거울 수선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외쳤다. 이에 나 승상의 딸이 그 소리를 듣고 낡은 거울을 유모에게 주어 보내고, 인해 유모를 따라 외문 밖으로 나와 사립문 틈으로 엿보았다. 그 장사 역시 몰래 눈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아가씨라 여기고는 쥐고 있던 거울을 고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유모가 발을 구르며 다급하게 화를 내자 장사 아이가 말하기를,

“이미 거울이 깨졌으니 발은 굴러 무엇하겠습니까? 이 몸이 노복이 되어 거울 깨뜨린 보상을 하겠으니 청을 들어주소서.”

하는지라. 유모가 돌아가 승상께 고하니 승상께서 허락하시고 물기를,

“너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하되,

“거울을 고치다 깨뜨렸으니 파경노라 불러 주시옵고,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갈 곳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승상은 파경노에게 말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파경노가 말을 타고 나가면 말 무리들이 열을 지어 뒤따랐으며 조금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이후로 말들이 살찌고 여윈 말이 없었다. ㉢ 아침에 파경노가 말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 사방에 흩어 놓고 숲 속에서 온종일 시를 읊으면, 청의동자* 수 명이 어디서 왔는지 혹은 말을 먹이고 혹은 채찍으로 훈련시키더라. 해가 지면 말들이 구름같이 모여 파경노 앞에 늘어선 머리를 조아리니 보는 이마다 신기함을 칭찬하지 않는 이 없더라. 나 승상 부인께서 이 소문을 듣고 승상에게 말하기를,

“파경노는 생김새가 기이하고 말 다름도 또한 기이하니 필시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천한 일을 맡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승상도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예전에 동산에다 나무와 꽃을 많이 심었으나 잘 가꾸지 못하여 거칠어지고 매물되어 잡초 속에 묻혀 버렸는지라, 파경노로 하여금 꽃밭 가꾸는 일을 맡기었다. 파경노는 또한 한가로이 꽃밭에 앉아서 시만 읊고 있을 뿐 가꾸는 일은 하지 않으나 하늘에서 선녀가 밤에 내려와 혹은 거름을 주어 가꾸고 혹은 풀을 뽑으니 전보다 배나 더 아름답고 무성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승상은 시를 지으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시름에 빠진다. 파경노의 비범함을 알아차린 딸의 권유로 승상이 파경노에게 시 짓는 일을 명하자 파경노는 자신을 사위로 삼는다면 시를 짓겠다고 말한다. 파경노가 노비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던 승상은 딸이 설득하자 결국 파경노를 사위로 맞이한다.

다음날 아침 승상이 사람을 시켜 시 짓는 모습을 엿보라 하였다. 이때 파경노가 자기 이름을 지어 치원이라 하고, 자를 고운이라 하더라. 승상의 딸이 옆에 앉아서 시 짓기를 재촉하니 치원이 말하기를,

“시는 내일 중으로 지을 것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오.”

하고는 승상의 딸더러 종이를 벽 위에 붙여 놓도록 하고 스스로 붓 대롱을 잡아 발가락에 끼우고 갔다. 승상의 딸이 근심하다가 고단하여 자는데 꿈속에 쌍룡이 하늘에서 내려와 함 위에서 서로 벗하며 무늬 옷을 입은 동자 십여 명이 함을 받들고 서서 소리 내어 노래하니 함이 열리는 듯하였다. 이윽고 쌍룡의 콧구멍에서 여러 가지 빛깔의 상서로운 기운이 나와 함속을 환히 비추니 그 안에 붉은 옷을 입고 푸른 수건을 쓴 사람이 좌우로 늘어선 어떤 자는 시를 지어 읊고 어떤 자는 붓을 잡아 글씨를 쓰는데, 승상이 빨리 시를 지으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놀라 깨어 보니 꿈이더라. ㉣ 치원 역시 깨어나 시를 지어 벽에 붙은 종이에다 써 놓으니 용과 뱀이 놀라 꿈틀거리는 듯하더라. 시의 내용인즉,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뜻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

이더라. 치원이 승상의 딸을 시켜 승상께 바치게 하니 승상이 믿지 않다가 딸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믿고 대궐로 들어가 왕께 바치었다. 왕이 보시고서 크게 놀라 물으시기를,

“경이 어떻게 알아 가지고 시를 지었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아뢰되,

㉤ “신이 지은 것이 아니옵고 신의 사위가 지은 것이옵니다.”

하니 왕은 사신으로 하여금 대국 황제께 바치었다. 황제가 그 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둥글고 둥근 함 속의 물건은 반은 희고 반은 노란데’는 맞는 구절이나 ‘밤마다 때를 알아 울려 하건만 뜻만 머금을 뿐 토하지 못하도다’라 한 것은 잘못이로다.”

하고 함을 열고 달걀을 보시니 여러 날 따뜻한 솜 속에서 병아리로 되어 있으며 황제가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천하의 기재로다.”

하고 학사를 불러 보이시니,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작자 미상, 「최고운전」 —

* 재예: 재능과 기예를 아울러 이르는 말.

* 청의동자: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아이.

3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이’는 승상 댁의 노복이 된 이후에 돌함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다.
- ② ‘승상의 부인’은 파경노의 외모와 행동을 근거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보았다.
- ③ ‘승상’은 파경노에게 천한 일을 맡기지 말라는 부인의 말을 따랐다.
- ④ ‘파경노’는 승상의 딸과 결혼한 이후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치원이라 지었다.
- ⑤ ‘승상의 딸’은 치원이 지은 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승상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36. 윗글의 **거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이가 승상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 소재이다.
- ② 승상 댁에 노복으로 들어간 아이가 겪게 될 고난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③ 아이가 승상의 사위가 되려는 내적 욕망을 실현하는 데 동원된 소재이다.
- ④ 혼인을 둘러싸고 아이와 승상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될 것을 예고하는 소재이다.
- ⑤ 아이가 승상 딸의 뛰어난 재예와 절개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재이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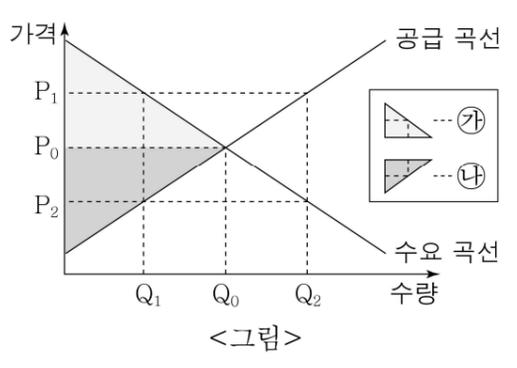
「최고운전」은 ‘시 짓기’를 통해 주인공과 국가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는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 작품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던 실존 인물 최치원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최치원의 삶이 주인공에 투영되어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비범함이 극적으로 부각되며, 이는 주로 ‘시 짓기’를 통해 발휘된다.

- ① ㉠에서 ‘시 짓기’는 중국 황제가 신라를 문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해 내세운 불합리한 요구로군.
- ② ㉡에서 ‘시 짓기’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신라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③ ㉢에서 ‘시 짓기’는 초월적 요소와 결합하여 인물의 비범함을 드러내는군.
- ④ ㉣에서 ‘시 짓기’는 신분적 한계로 인한 울분을 직접적으로 토로하는 수단으로군.
- ⑤ ㉣에서 ‘시 짓기’는 개인의 능력을 드러냄과 동시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된다. 재화의 가격이 P1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로 줄어들고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로 줄어든다.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의 차이이다.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은 소비자 잉여를, 실제 재화의 가격과 공급 곡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은 생산자 잉여를 나타낸다.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는 늘어나는 반면, 재화의 가격이 P2로 내려가면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500원/kg이고,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300원/kg이라고 가정해 보자. K국이 자유 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국산 밀가루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kg까지 내려가게 된다.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커지게 된다.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100원/kg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 밀가루의 국내 판매 가격은 400원/kg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100원/kg 오른 가격에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이 늘어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 자국의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하게 되어,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들의 소비를 줄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화된다면 K국의 경기는 결국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언급한 후 해결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④ 학설이 나타난 배경과 그 학문적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 ⑤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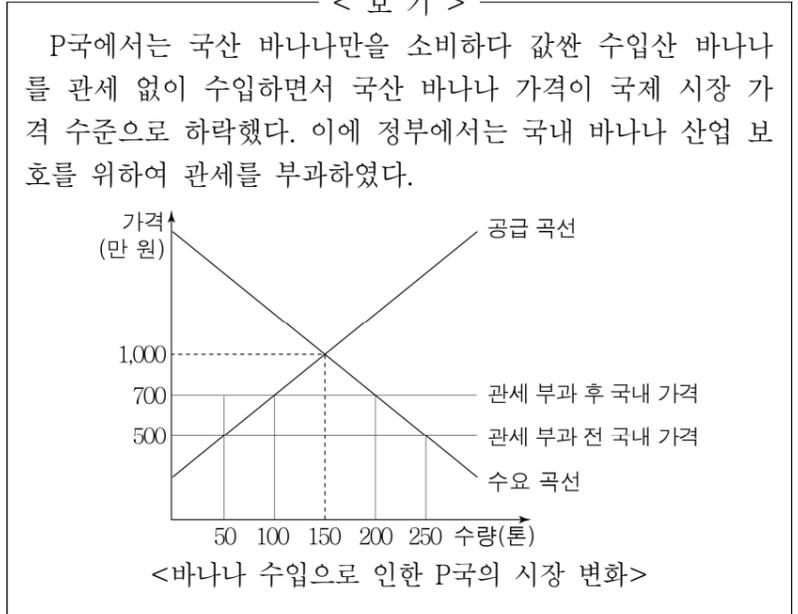
3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 ② 균형 가격에서는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동일하다.
- ③ 원료의 가격은 이에 기반한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 ④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

40.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과 같기 때문에
- ②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 ③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크기 때문에
- ④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 ⑤ 소비자 잉여 증가분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작기 때문에

4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 ②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 ③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 ④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 ⑤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42. 윗글의 '관세(A)'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B)'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 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이다.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스럽게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① A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겠군.
- ②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하겠군.
- ③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 ④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군.
- ⑤ A와 B 모두 국제 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겠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달빛 받은 웅기전의 웅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나)

죽장의 김삿갓은 죽고
참빗으로 이 잡던 시절도 가고
대바구니 전성 시절에

새벽 서리 났으며 어머니는 바구니 한 줄 이고 장에 가시고
고구마로 점심 때운 뒤 기다리는 오후, 너무 심심해 아홉 살
내가 두 살 터울 동생 손 잡고 신작로를 따라 마중갔었다. 이
십 리가 짱짱한 길, 버스는 하루에 두어 번 다녔지만 ㉠ 꼬박
꼬박 걸어오셨으므로 가다보면 도중에 만나겠지 생각하며 낮
선 아줌마에게 길도 물어가면서 ㉡ 하염없이..... 그런데 이 고
개만 넘으면 읍이라는 곳에서 해가 ㉢ 덜렁 졌다. 배는 고프고
으스스 무서워져 ㉣ 한참 망설이다가 되짚어 돌아오는 길은 한
없이 멀고 캄캄 어둠에 동생은 울고 기진맥진 한밤중에야 호
롱 들고 찾아나선 어머니를 만났다. — 어머니는 그날 따라 버
스로 오시고

아, 요즘도 장날이면
허리 굽은 어머니
플라스틱에 밀려 시세도 없는 대바구니 옆에 쭈그려앉아
㉤ 떨거니 팔리기를 기다리는
담양장.

- 최두석, 「담양장」 -

43.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② 역설법을 활용하여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조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의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선생님: 「추억에서」와 「담양장」은 ‘시 엮어 읽기’의 방법으로 감상하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시 엮어 읽기란 시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시를 서로 비교하며 감상함으로써 작품 감상의 폭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작품의 시적 상황, 정서, 소재, 배경 등을 고려하면서 시 엮어 읽기를 해 볼까요?

- ① (가)의 ‘고기’와 (나)의 ‘대바구니’는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장터에서 팔아야 하는 소재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② (가)의 ‘울 엄마야 울 엄마’와 (나)의 ‘허리 굽은 어머니’에는 고단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정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③ (가)의 ‘골방’에 비해 (나)의 ‘신작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능동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④ (가)의 ‘신새벽’과 (나)의 ‘한밤중’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어린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간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 ⑤ (가)의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에서는 어머니의 과거 삶을, (나)의 ‘아, 요즘도 장날이면’에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어머니의 현재 삶을 떠올리고 있는 시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에서는 정서나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부사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사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해 보면 시적 의미를 섬세하게 해석할 수 있어 감상의 묘미가 높아진다.

- ① ㉠: 늘 걸어서 장에 다니시는 어머니의 일상을 강조한다.
- ② ㉡: 어머니를 마중 갔던 길이 길고 멀었다는 것을 부각한다.
- ③ ㉢: 갑작스럽게 해가 저 놀라고 겁이 난 심리를 강조한다.
- ④ ㉣: 더 갈지 돌아가야 할지 주저하는 내적 갈등을 부각한다.
- ⑤ ㉤: 장이 끝나 가서 장사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을 강조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